

<2012년 9월 1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선지자가 아니라서 선지자에 대해 모르고, 왕이 아니라서 왕에 대해 모르고, 메시아가 아니라서 메시아에 대해 모르는 것이다.
2. 땅에서 메시아 사명을 해 봐야 땅의 메시아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3. 하늘에서 인간을 구하러 오는 구세주가 전능하신 신이라면, 그 대상은 땅에서 낳은 사람으로서 땅에서 뽑은 ‘사람이신 구세주’다. 성자는 그를 통해서 구원역사를 하신다.
4. 하늘에서 온 절대자 신은 ‘남자’라 칭하고, 땅에서 뽑은 자를 ‘여자’라 칭한다. 남자 격인 성자는 여자 격인 땅에서 뽑은 자를 통해 시대 구원역사를 펴신다.
5.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성약 때도 그리하신다.
6. 하나님께서 우상 종교에 관여하여 우상 종교에서 지도자를 뽑는 데 가담하시겠느냐? 그 상실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대로 버려두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7. 악인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백성이 악하든지,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8. 시대가 악하면 나라에 악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9. 시대가 악하면 하늘이 보낸 자도 나타나지 않는다. 환난이 지나야 나타난다.
10.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늘의 천적이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

11.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자들은 그 욕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도 심판을 면치 못하고, 그 욕이 죽어서도 그 영이 심판을 면치 못한다.

12. 하나님과 성자를 믿는 선한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히 용서하지 않으시고 형벌하신다.

13. ‘의인’도 악인에게 괴롭힘을 받은 때부터 한 때 두 때 반 때의 정한 때까지 고통을 받고, 생명권으로 나온다. ‘악인’도 의인을 괴롭힌 때부터 한 때 두 때 반 때의 정한 때까지 고통을 주고, 사망권 멸망으로 들어간다.

14.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시대에 보낸 의인과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해 버린다.

15. 모세 때도, 선지자 때도, 예수님 때도, 이 시대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는 그 시대에 보낸 자에게 시대의 상황을 고하게 하여 악한 자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16.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다.

17. 하나님은 구원자에게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심판의 말’이 되게 하기도 하시어 악인들을 멸하신다. 그 욕신은 멸정해도 그 영은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

18.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따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했다. 고로 사탄 루시퍼로 변질되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게 됐다.

19.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을 퍼실 때, 처음에는 잘 따르다가 가면서 점점 변질되어 자기 뜻대로 행한 자들은 스스로 심판받고, 루시퍼나 가룟 유다나 사울 왕같이 멸망으로 갔다.

20. 멸망으로 간 영들은 복직되지 못하고 거의 그대로 결정되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21. 한번 ‘선(善)’에서 벗어나 멸망으로 가면, 다시 ‘선(善)’에 오르기가 아주 어렵다. 고로 ‘선(善)’에 있을 때, 고통을 받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의를 행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구세주도 그 편이 되어 돕는다. 멸망으로 가면 악을 행하니 돕지 않는다.

22. 의인들이 악한 자들에게서 고통을 받는 기간에 고통만 받지 말고 기도하여라! 의인의 기도로 악인의 운명이 좌우된다.

23. 의인은 의롭게, 악인은 악하게 행하는 때가 있다. 때는 한 때 두 때 반 때다. 하나님은 이 때가 끝나면 심판하신다.

24. 악인은 의인을 괴롭히지만, 의인에게는 의로 인하여 악인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고로 의인이 기도하면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25. 악인은 악한 권세, 의인은 의로운 권세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시어 악인과 의인이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하신다.

26. 하나님과 성자를 배신한 자가 누구냐. 그는 곧 하나님과 성자가 그 시대에 보낸 구원자를 불신한 자요, 그를 통해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한 자들이다.

27. 배신자와 불신자는 오랫동안 형벌을 받는다. 복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배신당한 자만이 배신으로 인한 그 고통을 안다. 배신당하면, 하나님도 성자도 성자의 육도 그 고통이 너무도 크다. 겪어 본 자는 안다. 그로 인해 배신자의 영은 그 혼과 함께 불바다 세계 등 각종 지옥의 세계를 돌아다니며 정한 때까지 연속 고통을 받게 된다.

28. 이 시대 보낸 자를 배신하고 섭리사에 고통을 주고 갖은 악을 행한 자의 영을 영계에서 보았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 영이 짐승이 되어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

29. ‘지옥의 고통’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그 ‘육’이 지상에서 살 때도 받고, 그 영으로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다. 악하게 산 자의 영은 그 대로 악의 세계로 간다.

30.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손실을 본 고로 악은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여 성경에 나오듯이 시대마다 행하신다.

31. 하나님과 성자가 시대에 보낸 사명자는 심판의 권세를 받아 그 권세로 정한 때까지 자기를 해하는 자들을 치고 다스린다.

32.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의 육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자를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며 한 뜻을 편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신 바가 되어, 땅의 권세를 받은 자로 인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처하게 된다.

33. 악은 악으로 뭉쳐져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을 받으러 악의 세계로 간다.